

**【보고서 번역】**

# 에너지, 자동차, 지속가능성 - 2020년 10대 예측 - 요약본

## <일러두기>

☞ 본 자료는 Bloomberg NEF의 「Energy, Vehicles, Sustainability - 10 Predictions for 2020」 보고서 일부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요약한 내용이며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bout BloombergNEF : BloombergNEF (BNEF), Bloomberg's primary research service, covers clean energy, advanced transport, digital industry, innovative materials and commodities. We help corporate strategy, finance and policy professionals navigate change and generate opportunities. Available online, on mobile and on the Terminal, BNEF is powered by Bloomberg's global network of 19,000 employees in 176 locations, reporting 5,000 news stories a day.

※ 원문

[https://about.bnef.com/blog/energy-vehicles-sustainability-10-predictions-for-2020/?fbclid=IwAR1ucaznntmCJgyE4S5WiyC3hWffPPjVkOxmSMBjRU\\_zvgEih7uEL\\_dPtFE](https://about.bnef.com/blog/energy-vehicles-sustainability-10-predictions-for-2020/?fbclid=IwAR1ucaznntmCJgyE4S5WiyC3hWffPPjVkOxmSMBjRU_zvgEih7uEL_dPtFE)

※ 공식 한국어판(Bloomberg NEF 제공)

<https://www.bloomberg.co.kr/blog/energy-auto-sustainability-2020predictions/>

**BloombergNEF**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Agency

# 에너지, 자동차, 지속가능성 - 2020년 10대 예측 - 요약본 (Energy, Vehicles, Sustainability - 10 Predictions for 2020)

보고서 일자 : 2020.01.16.

※ 보고서의 전체 10대 예측 중 5가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1

### 신재생에너지 투자

- '19년 신재생에너지 생산용량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은 2,8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상승
  - 이는 후반 해상풍력 거래의 급증 때문이며, 풍력과 태양광 설비의 원가 하락과 중국 태양광 시장의 급격한 냉각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금년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한 번 더 약간 상승하여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럽 해상풍력 자금조달 증가, 미국 풍력 및 태양광의 확대 흐름, 정부의 장기적 전력 가격 지원이 없이도 설치되는 시설 확대 등이 주요 동인
- '20년 전 세계 풍력 및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사상 최고 수준인 200GW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

### 풍력

- '20년은 풍력 분야에서 기록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
  - 신규 육상풍력 설비는 69GW('19년 55.3GW)가 예상되며 미국, 중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이 주도
  - 해상풍력은 기록적인 2019년에 뒤이어 신규 용량 설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시 반등해 향후 10년간 다시 상승세 이어질 것
- 반면 투자 부문은 영국의 기가와트급 프로젝트, 미국 최초의 상업적 규모 자금조달, 중국의 건설붐 등으로 호황을 기대

- 특히 프랑스에서 100MW가 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최종 투자 결정을 마무리 짓고자 함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부유식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 채권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

- 덴마크에 위치한 5MW급 투노 knob(Tuno Knob) 해상풍력 발전소가 올해로 운영 25년차를 맞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인지 또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명 연장을 위한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인지 귀추 주목

### 3

## 태양광

- 신규 설비용량 기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121~154GW 수준, 2019년 121GW)되며, 많은 태양광 시설이 직접적인 보조금 없이도 설치되고 있음
- 유럽에서는 단기 전력구매 계약을 맺었거나 직접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의 태양광 시설이 '20년에 약 4.7GW 설치될 것으로 전망, 이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19년 1.3GW보다 높은 수치
- 중국은 별도 보조금 지원 없이 현재 석탄의 현지가격으로 설정된 발전차액지원 제도(FIT)만 적용받는 태양광 시설들을 포함해서 다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중국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전 세계 태양광 제조업체 약 300곳이 합병될 것으로 예상. 한편 살아남은 기업들은 양면수광형 태양광 모듈, 대형 웨이퍼 셀을 사용한 제품 등 더욱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나갈 전망

### 4

## 에너지 저장

- 금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프로젝트가 50억 달러 이상 발표될 것으로 전망
- 미국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 연계형 태양광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 전력 회사인 NextEra社의 '19년 신규 태양광 발전 중 50%가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
- 중국 발전 사업자들은 그리드 통합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것에 대비,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조합 프로젝트를 시험 중에 있음

-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들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같은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배터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 5 전기차와 자율주행

- '15년 100만 대였던 전기차는 '20년 말까지 1,000만대로 증가 예상,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구매 인센티브가 점차 줄어들어 따라 매출액 증가 속도는 느릴 것으로 전망
- '20년 전 세계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250만 대로 예상
- 중국은 여전히 절대값 기준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되겠지만, 2020년 말에 이르면 중국과 유럽 간 격차는 매우 좁혀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신에너지차 지원 제도(New Energy Vehicle credit system)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확산의 대부분이 정부와 공공부문 구매와, 내연기관 차량을 제한하는 도시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뜻함.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 경량상용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전기화(electrification)도 시장 성장세에 기여할 전망
- 중국의 올해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120만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말 전기차 보급 목표(50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최근 상하이에 문을 연 테슬라 공장은 연간 약 15만대 생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전기차 스타트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유럽에서도 '20년은 돌파구 같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2020-2021 EU CO<sub>2</sub>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라 '19년(50만대)보다 훨씬 더 많은 플러그인 자동차를 판매해야 함.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80만대를 약간 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의 판매를 주목해야 함
- 북미에서는 올해도 40만대를 밑도는 둔화세를 이어갈 것, 곧 출시될 테슬라 Model Y를 제외하면 올해 미국시장을 강타할 신규 모델이 많지 않음
-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이 내연기관 승용차의 판매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며, 올해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다시 한 번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